

빨간 트라이시클 엔텅

글 | 로스비 모히카 성

그림 | 앤 멕 아르보탄테

글 | 로스비 모히카 성 (Rosevi Mojica-Sung)

그림 | 앤 멕 아르보탄테 (Ann Megg Arbotante)

편집 | 김은파, 이수인, Mike Jaffe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베트남어 번역 | 황티장

중국어 번역 | Wenting Du, 교정: 이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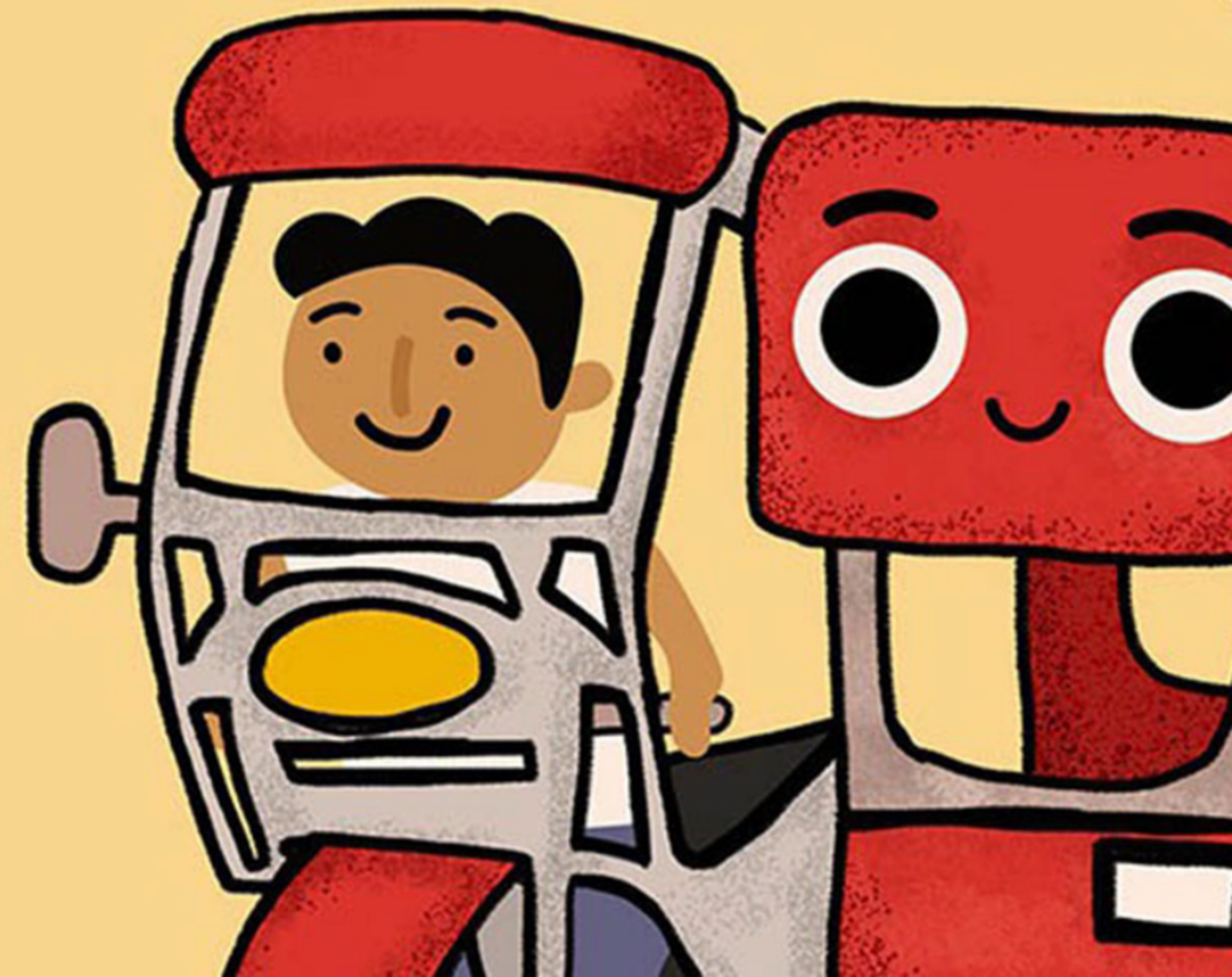
한국어 번역 | 김은파

태국어 번역 | 김주영, 감수: 분타리카 너이씨 (บุญทริกา น้อยศรี), 교정: 채혜

민

목소리 | 한국어: 윤성혜, 베트남어: 레 쉘언 비, 중국어: 곽효여,

영어: 제인 페인터, 태국어: 페와 떼차마하몽콘





이 빨간색 ‘트라이시클’의 이름은 엔텅입니다. 트라이시클은 필리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바퀴가 세 개인 오토바이이고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운반차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엔텅의 운전사는 파블로 아저씨입니다. 아주 친절한 트라이시클 운전사입니다.



엔텅과 파블로 아저씨는 산토 토마스 마을에 삽니다. 이 마을 이름은 수호 성인인 산토 토마스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매년 마을에서는 산토 토마스 축일에 축제를 벌입니다. 일 년 중 엔텅과 파블로 아저씨가 가장 바쁜 날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마을의 수호 성인에게 감사와 공경을 드리기 위해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농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해 달라고 축복도 빕니다.



축제가 있는 날 이른 아침, 파블로 아저씨가 엔텅에게 물었습니다.
“나갈 준비 됐니?” “네!” 하고 엔텅이 대답했습니다. 엔텅과 파블로 아저씨는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족들을 시장과 성당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엔텡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도로에 사람들의 행렬이 있어서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왜 저렇게 줄을 지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엔텡이 물었습니다.

“산토 토마스에게 감사를 드리고 축복을 빌기 위해서란다.” 파블로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엔텡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걸을 때 조심할게요.”



엔텅은 차가 막히는 곳을 빠져나와서 손님들을 태우고 ‘페르야’로 갔습니다. 페르야는 마을에 축제가 있을 때 세우는 이동식 놀이공원입니다.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탈 수 있고 게임을 하거나 공연을 볼 수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놀이공원에는 사람들이 아주아주 많았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엔텅은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구경했습니다. 아주 바쁜 하루였지만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볼 수 있어서 엔텅은 행복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엔텅과 파블로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파블로 아저씨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엔텅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사람들을 태우고 성당, 시장, 놀이공원에 갔었지. 이제 나도 성당에 가서 산토 토마스에게 감사를 드릴 거야. 가장 멋진 트라이시클인 엔텅 너에 대해서 말이야!”

“빨간 트라이시클 엔탱”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